

“국민연금 2년 연속 최고성과… 주식·채권 투자집행 속도”

〈기준 포트폴리오 체계 확대〉

작년 운용 수익률 15% 역대최대 해외투자·대체투자 비중 확대 결과 위험자산 효과적 배분 등도 한 몫 연금고갈 공포 상당부분 사라질 듯

202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5%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시장에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한 결과라 평가한다. 아울러 국내외 자산과 위험자산 등 중장기적 자산 배분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도 한몫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어려운 투자환경 속에도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은 국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 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우량 투자 기회 발굴과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국민연금이 기금의 위험을 줄이고 운용 능력 확대를 위해 만든 ‘기준포트폴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CIO)이 11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리오’체계를 대체투자에서 주식·채권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한층 안정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연금고갈에 대한 공포도 상당 부분 사그라들 전망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11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대

체투자부터 적용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이후 주식과 채권으로의 확대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단지침에 해당하는 기준포트폴리오는 70년간 투자방향성을 나타내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위험 수준을 결정하면 이

수준에 맞춰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으로 구성된 5년 단위 중기 전략적자산배분(SAA)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단위 전술적자산배분(TAA) 계획을 짜게 된다.

‘기준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되면 관련 투자 집행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주식과 채권으로 나눠 투자하게 돼 새로운 속성을 가진 투자자산을 편입하기 쉬워진다. 그간 국민연금은 데이터센터,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처럼 부동산과 주식, 인프라 속성을 모두 가진 자산군에 투자를 집행하기 까다로웠으나 제도 확대로 이른바 ‘회색 지대’에 속한 자산군에 투자를 집행하기 더 수월해진다.

서 CIO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200조원을 넘어선 만큼 확대 운용전략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으로,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0년 1755조원(실질 가치)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본 규모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지난해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높은 운용 수익률 15%를 달성했다”며 “현지 투자 정보 수집, 글로벌 운용사 등 주요 기관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현지 투자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가 집중되는 지역에 해외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설명했다. 운용직증원과 성과급 지급 체계 개편, 차세대 해외 투자 시스템 구축 등 기금운용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했다는 부연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운용자산의 해외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55%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해외주식 비중은 29.9%였으며, 대체투자도 17.1%까지 늘려왔다.

서 CIO는 “장기적으로 해외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국내외 투자 다변화와 위험 분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NXT 출범 첫 주… 거래액 98% 개미 차지

총 거래액 799억 중 개인거래 782억 기관이 1.58%, 외국인 0.58% 차지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동학개미’에게 자산을 늘리는 새로운 텃밭으로 자리잡고 있다.

11일 NXT에 따르면 지난주(4~7일) NXT의 전체 거래대금은 799억132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거래대금이 781억9391만원으로 전체의 97.85%에 달했다.

기관이 12억5919만원으로 1.58%, 외국인은 4억6020만원으로 0.58%를 차지했다.

거래 시간별로는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20분) 거래대금이 440억9630만원(55.18%)으로 가장 많았다.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과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거래대금은

각각 190억3332만원(23.82%), 167억80367만원(44.82%)이었다.

프리·애프터마켓의 합산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44.82%였다.

NXT에 상장된 10개 종목의 전체 거래량은 KRX 856만697주, NXT 297만6145주로, KRX 대비 NXT 거래량 비중은 34.77%였다.

거래대금 기준 KRX(2362억9662만원) 대비 NXT 비중은 33.82%였다.

종목별 거래량은 동국제약이 137만9246주로 가장 많았고, 이어 YG엔터테인먼트 50만4461주, LG유플러스 50만239주, 에스에프에이 21만296주, 코오롱인더스트리 11만3943주 등 순이었다.

KRX 대비 NXT 거래량 비중이 큰 종목으로는 88.31%의 동국제약을 비롯해 YG엔터(42.29%), 골프존(39.98%) 등이 있었다.

증권가는 출범 첫 주 NXT가 무난히

안착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정규장 이후 공시로 인한 대체거래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시차가 있는 해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가격 반영 과정에서 대체거래소에서 가격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대체거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유인이 발생한다면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증가할 여력이 크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NXT 출범을 계기로 커버리지(기업분석) 증권사들의 올헤지 배주주순이익 추정치를 일제히 올렸다. 상향폭은 NH투자증권 5.3%, 한국금융지주 2.0%, 삼성증권 4.3%, 키움증권 6.3% 등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변동성 피한 장기투자 TDF가 최적”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ACE TDF ETF 신규상장 세미나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가 투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어쩌면 미국 시장 기술주의 큰 하락은 시장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에게 TDF(Target Date Fund, 생애주펀드)에 투자하라는 계시일 수도 있겠다. TDF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기본 투자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최적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ACE TDF ETF 신규상장 기념 세미나’ 개회사에서 최근 시장의 흐름을 짚고 ‘왜 TDF에 관련 상품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했다.

“TDF,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 배분 비용 낮고, 매매 편의, 환급성 높은 ‘ACE TDF ETF 시리즈’ 선보여”

그는 젊은 투자자들에게 테크 관련 장기 투자를 권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서 이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TDF는 투자자의 생애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사람은 김장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다. 김 교수는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한 투자분석 전문가고, 강 상무는 ACE TDF ETF 포트폴리오 설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투자의 핵심은 ‘왜 투자하는가(Why)’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장기 투자 및 자산배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TDF의 글라이드 패스(Glide Path) 전략이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최적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강 상무는 TDF 관련 시장이 성장하

는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인식 확대 ▲퇴직금을 운용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증가 ▲국내보다 글로벌 투자 관심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강 상무는 “이번에 출시한 ACE TDF ETF 시리즈는 TDF와 ETF 장점을 결합해 선보이는 시리즈로 낮은 비용, 매매 편의성 및 높은 환급성과 투명한 자산 내역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강 상무는 한투운용의 ‘ACE TDF ETF’는 낮은 비용과 높은 환급성을 갖춘 상품으로, 금을 적극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투운용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자체 개발한 장기지분시장가정(LTCMA)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한투운용 TDF 상품들은 미국보다 은퇴 후 소득 감소폭이 큰 한국인의 소득 분포 반영해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고 채권 대비 실질 수익률이 우수한 금을 적극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강 상무는 “이번에 출시된 민티지(목표시점) 외에도 다양한 ACE ETF의 추가적인 출시 계획이 있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는 ‘ACE TDF2030액티브’, ‘ACE TDF2050액티브’, ‘ACE 장기자산배분액티브’ 3종이 신규 상장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증권업계 38년…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출간

한양증권은 임재택 대표이사가 직접 집필한 인생 경영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사진)’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1987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하며 증권 업계에 발을 디딘 임 대표는 아이엠투자증권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 한양증권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했다.

책에서 임 대표는 “삶도 경영도 1인치 앞선 전략이 승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인수·합병(M&A) 과정 속에서 겪었던 치열한 경험과 위기의 순간들을 돌아

보며 경영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 사람과 철학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교훈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어려운 경영학 서적이거나 성공학 개론과는 달리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쉽고 명징한 문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춘하추동 4계절로 구성된 독특한 챗터 구성도 돋보인다. 인생의 흐름을 사계절로 비유해 각 단계마다 값진 인생의 메시지가 명징한 언어로 전해진다. 임 대표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술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



고 묵묵히 이겨내니 CEO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삶의 굴곡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을 전하고자 쓴 책이다”라며 “반세기 이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스스로 터득한 인생의 이치와 지혜, 성공 코드, 삶의 무기, 전략 등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